



“물 없이 원적외선 만으로 거실서도 반신욕”

원적외선 사우나 기기를 만드는 미국계 회사에서 근무하던 김민석 씨는 2008년 어느 날 어머니에게 불평을 들었다. 반신욕이 너무 불편하다는 것이었다. 물을 받아야 하고, 욕실에서만 할 수 있고, 물 값과 가스비도 만만치 않다는 등이었다. 김씨는 원적외선을 활용한 반신욕기를 만들면 불편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그는 회사를 그만두고 이 아이디어를 들고 나와 뉴젠파우나를 설립했다.

◆원목이 경쟁력
경기 시흥시 전시장에서 만난 김 대표는 “물 대신 원적외선을 통해 열을 내는 건식사우나 원리를 활용한 제품”이라며 “이런 반신욕기의 경쟁력은 원적외선 기술과 원목 품질에 따라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뉴젠파우나는 원목을 직접 캐나다에서 구매한 뒤 중국 공장에서 건조과정을 거쳐 한국으로 들여와 최종 제품을 만든다.

뉴젠파우나는 국내 업체 중 처음으로 10년 무상 애프터서비스(AS)를 시행하고 있다. “목재가 갈라지거나 뒤틀리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는 건조과정이 잘못됐을 때 발생하는 명백한 불량이라고 보고 10년 AS 정책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원적외선 반신욕기의 장점으로 그는 “반신욕기를 욕실에서 거실로 가지고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반신욕 제품은 욕실에서만 사용할 수 있지만 원적외선 반신욕기는 TV를 보거나 소파에 앉아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편리하다는 설명이다.

◆가격 절반대로 낮춰
뉴젠파우나는 국내 원적외선 사우나 업체로는 드물게 기술연구소를 설립해 직접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벤처 인증과 이노비즈 인증을 받은 것도 이 같은 기술연구 투자 덕분이라고 김 대표는 설명했다. 이 연구소의 중요한 성과는 가격을 떨어뜨린 것이다. 과거에는 140만원대 제품이 주를 이뤘다. 뉴젠파우나는 연구개발을 통해 제품 가격을 70만~80만원대까지 낮췄다. 개인이 구매하는 비중이 전체의 60%가 넘는다고 김 대표는 설명했다.

업계선 드물게 연구소 두고
기술 혁신으로 가격 절반 낮춰
원목 특성 반영해 10년 AS
작년 日 수출...美·中 진출 눈앞

◆안전장치도 장착
뉴젠파우나는 전국 곳곳에 있는 다이아트 매장에서 마케팅 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곳에서 제품을 써본 사람들이 뉴젠파우나 로고를 보고 제품을 구매한다. 현재 뉴젠파우나는 전국 1만개 다이아트 매장에 약 2만개 제품을 판매했다. 2008년부터 5만개 정도가 팔렸다.

뉴젠파우나는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60도까지 기울어지는 기능을 집어넣었다. 안전을 위해 자동 전원차단장치 특허도 받았다. 넘어지면 바퀴 부분이 저절로 빠지면서 전원을 끊어 화재를 예방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김민석 뉴젠파우나 대표가 경기 시흥 전시장에서 원적외선 반신욕기를 설명하고 있다. 김용준 기자

지난해부터 일본에 수출을 시작했다. 중국에 있는 대리점 6곳과 판매계약을 맺었고, 미국 판매를 위해 인증절차도 밟고 있다.

베트남 동남아 등에서는 다이아트 매장을 통해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시흥=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이달의 으뜸중기제품’은 이메일(art@hankyung.com)로 응모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event.hankyung.com)를 참조하세요.

◆이달의 으뜸중기제품=△두손 크린셀 세탁세제 (032)577-3760 △루바니 유니 콤보 보온보랭가방 (02)1588-0647 △아이언맥스 원바디행거 스탠드형 스티다리미 (055)312-7610 △뉴젠파우나 원적외선 사우나기기 (031)311-3640

녹십자, 2세 경영체제 돌입

허은철 대표이사 사장 선임
조순태 부회장과 공동 경영



조순태 부회장 허은철 사장

녹십자가 2세 경영 체제에 들어갔다. 녹십자는 1일 조순태 현 사장을 대표이사 부회장으로 승진시키고 허은철 기획조정실장(부사장·42)을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했다. 허 신임 사장은 녹십자 창업자인 고(故) 허영섭 회장의 차남이다. 허일섭 현 녹십자홀딩스 회장이 작은 아버지다. 허 신임 사장은 지난해 녹십자 기획조정실장을 맡은 지 1년 만에 대표이사가 됐다.

녹십자에는 허 사장 외에 고 허 회장의 삼남인 허용준 녹십자홀딩스 부사장 등 창업자 2세들이 나란히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허일섭 회장의 자녀들은 나이가 어려 회사에 몸담고 있지 않다. 조 신임 부회장은 녹십자 전문경영인으

로는 처음으로 대표이사 부회장이 됐다. 올해 국내 제약사 최초로 수출 2억달러를 달성하고 제약사 최고 수준의 영업실적을 낸 것에 대한 보상이라는 관측이다. 조 부회장은 녹십자의 공동대표를 맡아 허 사장과 보조를 맞추게 된다. 녹십자 관계자는 “2세가 사실상 경영 전면에 나서게 되는 만큼 전산 홍보 등 지원부서를 녹십자홀딩스로 이관해 전사적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조직개편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김형호기자 chsan@hankyung.com

유진, 초저온 냉동물류 사업 진출

송도 LNG기지 폐냉기 활용

레미콘업체 유진기업이 친환경 초저온 냉동물류단지 사업에 진출한다. 유진기업은 자회사 유진초저온을 통해 인천 송도 LNG 기지 인근에 17만6000Mt(메가톤) 규모의 초저온 물류단지를 조성한다고 1일 발표했다.

이 사업은 송도 LNG 기지에서 발생하는 영하 162도의 냉기를 재활용해 초저온 물류창고를 가동하는 것이다. 기존 냉동·냉장창고는 전기로 작동해 에너지 소모가 많지만 초저온 냉동창고는 바다로 버려지는 LNG 냉기를 재활용해 70% 이상 전력을 아끼고 환경도 보호할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유진기업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3월 자회사 형태로 유진초저온을 설립했으며 9월 인천시에 사업을 제안

했다. 유진초저온은 송도에서 LNG 기지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가스공사와 사업 추진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다. 세계 최초로 LNG 냉기·냉동기술을 개발하고 실용화한 일본 도쿄가스엔지니어링(TGE)과 기술 제휴를 맺었다. 2016년까지 물류단지 조성을 마칠 계획이다.

양원훈 유진초저온 대표는 “이 물류단지가 완공되면 앞으로 인천항이 동북아 물류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진그룹은 환경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그룹의 성장동력으로 정하고 계열사 유진에너지팜을 통해 에너지저장장치(ESS)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 그룹 관계자는 “열병합 발전, 유기성 폐기물 연료화 사업 등에도 단계적으로 진출해 사업 간 시너지 효과를 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은기자 ikesmile@hankyung.com

코스맥스바이오 대표 김경용 씨



건강기능식품업체 코스맥스바이오가 1일 김경용 전 코오롱웰케어 대표(54·사진)를 신임 대표에 선임했다. 김 대표는 코오롱 그룹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경영인 출신이다. 대구 오성고,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김 대표는 코오롱인더스트리와 코오롱그룹 전략기획실장(전무급), 코오롱글로벌 AM 사업본부장을 거쳤다. 지주사 체제 전환과 사업조정 과정에서 역량을 발휘하는 등 코오롱그룹 내에서 기획력이 뛰어난 대표적 브레인으로 꼽혔다. 이준혁기자 rainbow@hankyung.com

중견제약사, 리베이트 투아웃제 ‘반사이익’

뉴스카페

지난 7월 리베이트 투아웃제 도입 이후 국내 제약업계에 지각변동이 일고 있다. 영업활동이 크게 위축된 10위 이내 상위사의 처방액이 크게 줄어든 반면 다국적사와 11~40위권 중견 제약사들은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

리베이트 투아웃제는 리베이트 영업적발 시 해당 의약품에 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일정 기간 삭제하는 제도다. 두 번 적발되면 영구 퇴출한다. 일단 한 번 적발되면 다시 등재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



라는 게 업계 인식이다. 이 제도 도입 후 상위 제약사들은 공정자율준수프로그램 가동과 함께 자체 감사에서 리베이트

혐의가 적발된 영업직원에 대해 강력한 인사 조치에 나서는 등 영업문화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의약품정보업체 유비스트에 따르면 10위권 내 상위 제약사의 월별 처방액은 올 하반기 들어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상위 10개사의 10월 처방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8% 줄었다. 반면 11~40위 중견 제약사의 처방액은 같은 기간 2% 늘었다. 다국적 제약사의 대형 품목 매출도 꾸준히 늘었다. 상위사 중에서는 동아에스티(-11.8%) 한미약품(-6.5%) 대웅제약(-5%)의 처방액 감소폭이 컸다. 김형호기자 chsan@hankyung.com

투싼인베스트, 벤처펀드 결성액 절반 美서 유치

미국 대형 자산운용사인 그린포인트자산운용이 국내에서 조성하는 벤처펀드에 230억원을 투자한다. 미국 투자회사가 한국 벤처펀드에 결성액의 절반 이상을 대며 주요투자자(LP)로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 벤처캐피털인 투싼인베스트는 올해 초 그린포인트자산운용과 한국 기술벤처기업에 주력으로 투자하는 펀드

를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펀드명은 각각 ‘투싼그린포인트미텔슈탄트펀드1호’(400억원) ‘투싼그린포인트미텔슈탄트펀드 2호’(56억원)다. 그린포인트가 펀드 조성액(456억원) 중 50.4%인 230억원을 출자한다. 모태펀드에는 161억원을 투자한다. 오동혁기자 otto83@hankyung.com

▶마켓인사이트 11월28일오전5시16분

The 25th East China Fair · 2015 Shanghai

제25회 중국 화동 수출입 상품 교역회 (2015상해)

2015년 3월 1일 - 5일
상해신국제전시센터(SNIEC)

중국 화동 최대의 경제 무역 교역회

화동 교역회 전시 품목
패션의류, 가정용품, 텍스타일, 일상소비제품, 공예품 등

전시규모 **115,000 SQM** 부스개수 **5,780** 개

화동수출입상품교역회는 매년 개최되며 2015년 25회째를 맞이하는 화동지역 최대 경제무역 교역회이다.

제24회 화동 교역회 전시결과 데이터

참가 업체 **3,441** 개 전문 바이어 **35,433** 명 거래 액 **27.59** 억 달러

주최
상해시, 감소성, 절강성, 안취성, 복건성, 강서성, 산둥성, 남경시, 닝보시 등 9개 성파시 공동 주최

www.ecf.gov.cn

중국주최측
Tel: 0086-21-63539977x1256/1216/1222/1225
Fax: 0086-21-33030072
E-mail: info@ecf.gov.cn

한국에이전트
Tel: 031-711-2707
Fax: 031-711-2718
E-mail: jiyayou2009@daum.net

Welcome to the 25th East China Fair

Please search **ECF** to download smart phone app